

# “친밀한 성인 2인을 초대합니다”



한 경 혜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 학장

가족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우스개 소리처럼 하는 이야기 중에 ‘5월 특수特需’라는 말이 있다. 매년 5월이 가까워지면, 한국가족의 현실을 진단하거나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전문가의 입장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는 가족을 개인적, 사적 영역으로 여기고, 그래서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며, ‘항상 거기에 있는 것으로 당연시’하다가, 일년에 한번 가정의 달 즈음에서야 연례행사처럼 주목을 하고 넘어가버리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판이 들어있다.

그런가하면, ‘세기말 特需’도 있었다. 21세기로의 진입이 가까워지던 1990년대 후반부에는 유난히 가족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가족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이런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경우는 아니었던 것 같다.

1999년에 나는 연구년을 맞아 1년동안 미국의 위스컨신 대학에 있었는데, 신문이나 TV등 대중매체에서 연일 가족의 변화 및 미래와 관련된 크고 작은 기사 및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물론 미국의 경우, 그전에도 가족의 변화에 대하여 학자들간의 논쟁이나 정치적 공방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지만, 새로운 한 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그 논쟁은 특별히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듯 했고 유난히 치열하였다.

그 때 지방신문에 난 작은 기사 하나를 우연히 읽고 “미국가족이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구나”를 실감했었던 기억이 있다. 중학교 졸업식에 학생의 부모/가족을 초대하는 광고형식의 작은 기사였는데, “○월○일에 거행되는 졸업식에, 졸업하는 학생과 친밀한 성인 2인을 초대합니다”로 되어 있었다.

이 기사는 ‘혈연으로 연결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하는 핵가족’이 더 이상 보편적 가족의 형태가 아니라 는 미국의 현실을 극명히 반영하는 것이었다. 미국사회

에서 상당기간동안 계속되어 온 혼전 출산, 이혼, 재혼의 증가로 인하여 한부모 가족, 계부모 가족이나 조손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속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절대적, 상대적 숫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뿐 아니라, 위탁부모 등 혈연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은 가족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숫자 또한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고, 정자은행을 통한 자녀출산이나 동성애 가족의 증가로 부-모가 반드시 남성-여성의 조합으로 연결되지 않는 가족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초대기사는 이런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부모를 초대한다’는 문구를 쓸 경우 많은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배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였다. 가족의 형태가 매우 다양화

된 미국에서조차도 아직 ‘부모’라는 단어를 썼을 때 대개는 혈연으로 맺어진, 아버지-어머니(남성-여성)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기사는 가족의 범주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놀라웠고, ‘관계의 친밀성’만이 유일하게 제시된 가족의 범주이자 가족 정의의 요건이라는 점에서 진보적 가족학자들의 관점과 지향성이 같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정형적 가족의 범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형태의 가족에 대하여 한국사회가 보이는 경직된 시각에 생각이 맴돌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가하면 한편으로는 가족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현실에서 가족의 범주, 개념을 과연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회적 파장은 무엇일까,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들 또한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잘 알다시피 최근 한국가족은 미국이나 서구 가족 못지않은(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한) 급격하고도 광범위한 변화의 외중에 있다. 그와 함께,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최근 1~2년 동안은 가족을 둘러싼 공방이 5월에만 국한되지 않고 연중 내내 계속되는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제기된 가족위기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야할 필요성을 공론화하는데 오히려 기여한 측면 또한 없지 않다. 소위 ‘건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부정적 낙인찍음 없이 가족의 건강성, 나아가서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강가족’과 관련된 공방이 그 대표적 예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부정적 낙인찍음 없이 가족의 건강성, 나아가서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보건복지포럼 5월호를 기획특집으로 한국가족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한 것은 그런 면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가족위기를 대 재구조화에 대한 공방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가족의 현재를 돌아보고, 이혼, 결혼행동의 변화의 의미를 분석하고 사회적 대책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안다. 돌봄노동의 주제로서 한국가족의 현실에 대한 심층적 조망과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한국 가족문화를 재조명해보는 작업이 소개되고 있다.

한국가족의 미래에 대한 성찰도 함께 하는 이 자리가 한국가족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현실감 있으면서도 발전적인 담론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